

“야권 재편”

千, 신당 선언...파급력 주목
“개혁적 가치 공유 누구나 환영”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0일 신당 창당을 선언함에 따라 야권 재편을 이끌 수 있을 것인지 그 파급력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일단, 천정배 의원은 '개혁적 국민정당'의 기치와 '중용'의 노선을 내걸고 신당 창당의 첫걸음을 뒀다. 천 의원은 신당의 목표와 비전을 ▲기득권에 맞서는 야당 ▲'기본이 채워지는 삶'의 실현 ▲혁신경제 실현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노선 ▲국민과 민심을 받드는 정당 ▲청년의 정당 ▲당원이 자부심을 갖는 정당으로 제시했다. 천 의원은 10월 국민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까지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 1월 중 창당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신당 창당 로드맵'을 밝혔다.

하지만, '천정배 신당'의 파괴력은 미지수다. 천정배 신당의 이념과 비전을 실행

할 인재 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 의원 측에서는 10월 국민정당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신당에 참여할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이 공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정배 신당을 상징할 만한 거물급 인사 영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초조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 주목할 만한 인사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어서다.

이를 반영하듯, 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과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새정치연합에서 미래, 희망을 잃은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용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도 했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개혁정당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당에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다면 야권의 지형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안 의원이 신당 참여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다 아직까지 정치적 명분도 충분치 않아 가능성은 크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해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이 주목된다. 문 대표 거취 등을 두고 당내 논란이 심화할 경우 비주류를 중심으로 이탈 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비주류 진영의 핵심 인사는 “아직 탈당과 신당 참여에 나서기에는 주류 진영의

정치적 압박이나 탄압이 충분치 않다”며 “하지만, 문 대표가 재신임을 강행하는 등 주류 측의 실력 행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비주류의 이탈 가능성은 높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이 큰 호남 민심을 고려하면 신당이 인재 영입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할 인재 풀을 확보해나가는 천정배 신당의 성공을 위한 과제”라며 “올해 내에 외부 인사 영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천정배 신당은 창당초의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출마선언 3주년' 기자회견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20일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웬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다. 또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지만 해도 공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자신이 제안한 3대 혁신인 ▲낮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부패 척결’ 부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국회의원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

며 당내 온정주의를 비판하고,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 기조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부패에 대한 이 중장태를 정면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무관용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무관용 원칙과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명해야 한다. 부패 연루자와 연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며 “피선거권 및 공직 임명권을 영구 제한하고, 뇌물죄는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패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면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일체의 공직 후보 심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정치검찰의 공작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소명이나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우리 편이라고 감싸면 당의 미래는 없다. 손가락질 받은 정당에 집권의 길이 열리겠나”라며 “제 역할을 못하는 윤리기구와 방관하는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법적 관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

“부패 척결”

안, 정치 입문 3주년 간담회
“비리 눈감는 당에 미래 없어”

는 반부패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며 “엄격한 윤리기준 확립을 위해 당헌을 즉각 개정하고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도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뇌물수수 유죄 확정판결시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언행으로 지탄을 초래했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감 인물

“R&D 지원금, 농어업 비중 0.9%” 지적 “농어촌 개발 5개년 사업” 지지부진” 질타

이개호 새정치 의원 ‘호평’



개발 5개년 사업’을 수립해 놓고 아직까지 부처별 시행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현장에 첨단 과학기술

국회 미창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지방화와 농어업 분야와의 연계를 주문,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5년도 R&D 지원금(1조8천억원) 가운데 농어업 비중은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미래전략산업인 농어업 R&D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천일염의 우수성과 상품성 등을 주목 조목 강조, 식품연구원장으로부터 천일염 연구 확대 방안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농어촌 지역

을 적용,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국 각지 별정 국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조목 조목 제시, 정부 측으로부터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불품 공급 형태로 하도급에 참여, 중소기업의 산업 기반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 미래부 장관으로부터 대기업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임동욱기자 tuim@

국감 브리핑

“광주·전남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김동철 새정치 의원



다. 도의 경우 전남은 14.5%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 30.3%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최고는 49.9%의 경기도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9%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별시인 서울시는 80.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57.5%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광주는 전국 광역시 평균 47.6%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영남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7.7%였지만 호남은 30%에 불과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73.2%로 월등히 높았다.

“국내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오염 심각”

김승남 새정치 의원



역에 떠다니는 부유 미세플라스틱은 1㎢당 55만개가 검출돼 국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20일 국회 농업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의원의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사결과 경남 거제 동부해안을 포함한 전국 12개 해안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평균밀도가 전 세계 주요 비교 지역보다 13배나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 진해만 및 거제 주변해

김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염 현황 파악 및 향후 장기적인 모니터링 지침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임대보증금 담보 대출 보증서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